

합의 없는 교수의 ‘일방적 주장’ 학생과의 갈등

교수의 발언 허용 범위

권윤지 기자 happitice2@knu.ac.kr
김규래 기자 rlarbfo41@knu.ac.kr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풍경이 주기적으로 문제로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여러 차례의 논란이 대학가를 달궜다. 먼저 지난 6월 4일에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교양과목인 ‘과학 철학’ 수업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우리학교 생명과학대학 김세영 교수가 ‘생물2’ 수업에서 이메일을 통해 ‘역사 다큐멘터리(백년전쟁-이승만의 두 얼굴)’과 일본 아사히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슬픈 테러리스트의 진실)을 시청하고 영상에 대한 생각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며 역시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정안기 연구교수가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삯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바를 학생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간에는 어떠한 역학관계가 형성되는가?

고리무는 교수의 사적 견해 강요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없나

‘합의를 통한 사회 지배’를 일컫는 ‘헤게모니(Hegemon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다.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그는 계급들 간의 관계, 특히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에 발생하는 ‘통제’의 관점에서 이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진부한 인용이지만, ‘두산백과’는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가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



교수는 평가와 학점을 무기로 학생을 ‘피지배계급’으로 거느린다

대학가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공교과목 시간에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내용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벌어진 경우다

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X와 Y라는 두 대상을 상정할 때 헤게모니란 X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Y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학교의 수업시간에 대입해보자. ‘입학’과 ‘수강신청’이라는 계약, 동의절차를 통해, 특정한 수업의 수강생들은 ‘교수자’로서의 권리와 주당 세 시간 가량의 수업시간을 ‘경희대학교’에 속한 ‘특정 교수’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게 된다. 따라서 수업시간 중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일종의 ‘헤게모니’ 역학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정 수업시간의 역학관계에서 ‘지배계급’의 지위를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수자, 즉 교수다. 교수는 평가와 학점을 무기로 학생을 ‘피지배계급’으로 거느린다. 종속집단인 학생이 이러한 구조적 맥락-즉 교수의 가르침에 최대한 따라서 교수로부터 좋은 학점을 얻는다는 ‘강의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수업 시간의 이와 같은 헤게

모니는 성공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의미적으로 내포한다. 이는 수업시간의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학생에게 있어 교수는 개념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이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장착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특정 수업시간에 그 담당교수는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i) 암묵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의 ‘지배자’이며 ii) 학점이라는 수단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평가자’이며 iii)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우월자’가 된다.

학생이 수업 도중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주장, 지시, 요구 등에 직면했을 때 이것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적으로 피지배계급의 위치에 놓인 학생은 교수에 대해 사실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삼중의 제약 속에 묶여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의 헤게모니에서 ‘지배권’을 인정

받는 주체가 관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교수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교수는 언제나 ‘학점’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양도한 학생들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정당한 교수법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강의

당혹·혼란 빚게 돼

‘교수의 일방적인 사적 견해 강요’로 올해 대학가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 사례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공교과목 시간에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내용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벌어진 경우다.

전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정 수업시간의 역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절차의 전제가 되는 강의계획서다. 수강

서울캠퍼스 2015-2 사회봉사과목 이수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 1,2,3” 강좌의 학점을 이수시 공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대상 | - 2015-2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03학번 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 |
| 과목명 |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단계별 이수) |
| 이수구분 | 자유이수(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
| 학점체계 | 1학점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
| 이수절차 |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 ※봉사 인정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65(원봉사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서울시] 봉사활동 확인서는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교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체계봉사단, 입학지도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 교내 캠페인,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 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티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글로벌센터(FCC 한국어도우미) |
| 봉사활동인정기간 | 2015. 3.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
| 서류제출기간 | 2015. 11. 16(월) ~ 2015. 11. 27(금) 오후 5시 30분 마감 |
|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 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현학증은 1장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 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 까지만 인정 가능함. |

| | |
|-------------------------------------------------------------------------------------------------|--------------------------------------------------------------------------------------------------------------------------------------------------------------------------------------------------------------------------------------------------------------------------------------------------------------------------------------------------------------------------------------------------------------------------------------------------------------------------------------------------------------------------------------------------------------------------------------------------|
| 학점 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해 하루에 한 헛날(4시간)과 다른 봉사 기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됨 |
| |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3.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부터 인정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자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회만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 확인서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원본디자인을 위해 원본을 꼭 지참)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봉사프로그램,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력”, 봉사 기관별로 개별 발급 x) 9. 사회봉사 제출 서류(학점이수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 설문지) 양식은 사회봉사 커뮤니티(http://club.knu.ac.kr/khusge)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기타 |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체계 학점에 포함 되지 않음. 3. 2014-1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F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점에는 영향없음) 4. 2004학년 ~ 2010학년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할 경우 문화체계지도 자영(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후마니티스칼리지에 문의바랍니다. |
| -사회봉사커뮤니티: http://club.knu.ac.kr/khusge | |
|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http://khgsc.knu.ac.kr | |
| ※ 기타 문의사항: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학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leehw53@knu.ac.kr(이현호) | |

진짜 나를 만날 시간



내 안의 감정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공감훈련 집단상담은 자신을 이해하고 나와 남을 공감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5. 9. 24 ~ 11. 19 (매주 목 / 총 8회) 오후 3시~5시
*증간교시 기간 10/22은 모임없음

장소 | 청문관 1층 학생생활연구소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온전 9:30~12:00, 오후 1:00~5:00 예민 접수 가능합니다.